

환경

폐자원 재활용 증대... 광주를 자원순환도시로

■광주시 올 환경시책 확정

광주시가 올해 주요 환경시책으로 ▲저탄소 녹색경제도시 구현 ▲자연친화 공인도시 조성 ▲생명력이 넘치는 광주전·영산강 창출 ▲시민과 함께 환경선진도시 도약 등을 선정했다.

환경생태분야 2012년 제임예산은 2183억1700만원. 세출예산은 2915억 69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산강살리기 특별회계 등이 포함됐다.

◇저탄소 녹색경제도시 구현=광주시는 우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폐자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 방침이다. 폐기물 연료화 사업(RDF), 자원순환특화단지, 한국도시

광주천 수질 높이고 영산강 지류 정비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 근린공원 개발도

광산기술원 설립,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등도 추진된다. 폐기물 연료화(RDF) 시설은 오는 2015년까지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내에 1425억원(국비 50% 시비 5% 이하 민자 45%)을 들여 건립된다. 건립 및 운영은 제3섹터(민관합동법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수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이

다. 대상은 단독주택 19만7360세대, 소형음식점 1만6110개소 등이다. 푸른길공원 주변에는 그린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자연친화 공인도시 조성=무등산과 관련 국립공원 지정, 군부대 개원생매립장 내외 등 탐방 편의제공, 무등산 헬기비행장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 외에 문화도시 품격을 갖춘 공원 조성, 공원 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녹색휴식 공간 마련, 광주공원·운암제3근린공

원 및 어린이 공원 시설 개선, 도심 장기집행 근린공원 단계별 개발 등이 추진된다.

◇생명력이 넘치는 광주전·영산강 창출=올 하반기 총인처리시설을 비롯 하수 처리·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해 광주천의 수질을 목표인 BOD 5.6mg/l 까지 낮춘다.

주암댐 원수 공급, 광주천상류 저류습지조성, 빗물 모으기 등으로 말라 있는 광주천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루 14만3000톤에서 올해는 26만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광주천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고, 야생화·개나리 군락을 조성하는 한편 영산강 지류에 대한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마을하수도 설치, 개방화장실 확대, 환풍강·사창천·풍영정천 등 영산강

지류정비 등도 포함됐다.

◇시민과 함께 환경선진도시 도약=올해부터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연합(UEAMA) 사무국 본격 운영을 통해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존 52개국 141개 가입도시를 올해 100개국 300개 도시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 내 동·식물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서식환경 개선 등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체계를 수립, 생태탐방로 조성, 비오름지도 작성, 야생 동·식물 서식지 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기업·행정 등 전 분야가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환경부, AI위험 야생조류 63종 선정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책자 발간

환경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험성이 높은 야생조류 63종을 선정·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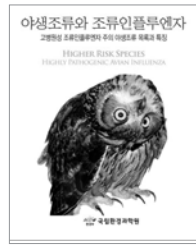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AI 발생 위험이 큰 야생조류의 특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국내외의 AI 감염 사례가 있는 335종의 이동성, 선호 서식지, 군집성, HPAI 감염사례, 집단번식지와 서식지에서의 밀집도, 포식성, 부식성, 사람과 가금에의 접촉정도에 따른 HPAI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야생조류 63종을 선정했다.

특히 AI 주의 야생조류 63종의 종별 특성, 식별요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감염사례, 생태, 주의사항, 위험도, 서식 지도를 담았다.

또 주의 야생조류 63종을 21개과와 철새, 포식성 새 등 5개 생태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람이나 가금과의 접촉위험이 큰 가금종 32종을 따로 정리했다.

오리과는 청둥오리, 원앙, 쇠 거러기, 큰고니 등 19종, 매과는 황조롱이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와 매, 까마귀과는 까치와 까마귀 등 7종의 위험도가 높은 주의종을 포함했다.

또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했

으며 청둥오리, 큰고니, 제비, 떼까치 등 36종과 철새, 황조롱이 등을 7종은 포식성 조류로, 까치와 까마귀 등 12종은 부식성 조류로, 이외 기타 텃새와 군집성 조류군 등으로 나눴다.

특히 인가와 농경지에 자주 출몰해 야생조류와 가축 또는 사람 간의 AI 감염과 전파매개 가능성이 큰 청둥오리, 쇠 거러기, 제비, 까치 등 32종은 특별히 주의할 가금종(架橋種)으로 지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주의종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하면 AI 예방과 야생조류 보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책은 AI 관련기관과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에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기 방출 세슘, 체르노빌의 20%... 복구 멀었다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세계 곳곳서 탈원전 목소리

오는 11일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된다. 1만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재산피해액은 17조엔(약 238조원)에 이른다. 미래 무형의 유류증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유럽 등지에서 탈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에 지진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탑프가 정지되고 수소폭발이 발생했으며 6개 원자로 중 3개 원자로의 핵 연료가 녹아내렸다. 방사능 물질이 폭발로 인해 대기에 퍼져나갔고 과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로 인해 바다까지 오염됐다. 방사능 오염 수위가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영속

될 것이라는 게 프랑스의 '방사능 방어 및 핵안전 연구소(IRSN)'의 주장이다.

◇불안한 후쿠시마 주민들 표정=후쿠시마현 주민들은 1년이 지나는데도 불안했던 것보다 안정을 찾은 상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10~3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郡山)시와 가와우치무라(川内村)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민들은 파란을 갖지만 최근 대부분은 국도 288호선으로 연결된 고리야마 곳곳의 임시주택에 동지를 마련한 상태였다. 임시 주택에 한결같이 1층 원룸 형태. 깔끔하긴 해도 당장 추위는 피하는 게 고작일 것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에 사는 80대 할아버지는 "집이 좁고 낮에 할 일이 없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고리야마 시내의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4~1.5 마이크로시버트(μSv)이며, 가와우치무라에 시간

당 0.14~0.53 μSv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생상 방사선 수치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그래도 불안감을 누르고 먼저 가와우치무라로 돌아간 주민 200명은 대부분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다.

◇원전사고로 방출된 천문학적인 세슘량=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세슘의 총량이 최대 약 4경(1경은 1만조) 베크렐(Bq)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는 바닷물의 방사능 실측치를 토대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세슘의 총량을 4경 베크렐로 추정했다. 이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출된 세슘량의 약 20%에 상당하며, 지금까지 일본 국내의 기관에 의한 추정치의 약 2배이다. 기상연구소가 북태평양 79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세슘 농도 실측치를 토대로 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한 것으로, 기존 추산에 비해 실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90% 이상이 '복구 아직 멀어'=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주민 10명 중 9명은 복구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8명은 원대 생활은 10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난 3일과 4일 후쿠시마현 주민 921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복구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이 54%, '전혀 안 보인다'는 응답이 38%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는 전망이 있다'는 주민은 7%에 불과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다이옥신 배출량 8년새 87% 감소

환경부는 2009년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 126.6g I-TEQ로 2001년 1천4g I-TEQ, 2007년 164.5g I-TEQ에 비해 각각 87%, 23% 줄어 들었다고 6일 밝혔다.

I-TEQ는 다이옥신의 이성질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의 독성을 1로 보고 나머지 다이옥신류의 독성을 환산해 나타낸 농도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소각시설은 48.0g I-TEQ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2001년 880g I-TEQ에 비해 94.5% 감소했다.

비소각시설의 배출량은 2001년 123.8g I-TEQ에서 2009년 78.6g I-TEQ로 36.5% 줄었다.

이런 감소 추세는 같은 기간 일본의 저감률 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자랑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원전비중 확대 반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에 반대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일 "여론조사업체 와이즈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3~23일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원전 비중 확대에 43.1%가 '대체로 반대'를, 21.8%가 '절대 반대'를 택했다"고 밝혔다.

내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41.4%가 '대체로 반대', 37.9%가 '절대 반대'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4.3%다. /연합뉴스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12일(월)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24주 (96시간) 과정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3월 12일(월) 09:30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8일(목) 09:30 각25명 2급반 수요일(오후) : 2012년 3월 7일(수) 14:0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3월 7일(수) 09:30 25명 ▶수업시간 • 오전반 : 09:30 ~ 13:00 • 오후반 : 14:00 ~ 17:30 ▶연수 요일은 희망인원에 따라 변경가능 수료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 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 농협 175375-56-0651371(이중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문의상담 : ☎062)366-9666, 367-8666 ▶우대사항 • 방과후 학교 현직 한자지도강사 • 퇴직교원 및 현직 한문교사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학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광관리협회부근)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증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모빌 및 목욕탕 고시원 다가구주택(월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합>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역특성 • 용도 : 주거지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지역 <모빌 매매>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대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지연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비이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현대공인증개사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감정가5억9천만 최저가4억2천만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변로(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오치동 4층상가건물 대지114평 건평199평 감정가5억1천만 최저가3억5천만 단독주택 · 북구 오치동 2층단독주택 대지67평 건평65평 근린주택 감정가1억8천만 최저가1억3천만 근린주택 · 동구 지산동 2층근린주택 대지263평 건평94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은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병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망좋은 차량진입가능 현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 매매 8천만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응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응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합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영천 신문로, 대인동 소상사거리근)